

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5. 9. 17.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벌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프리 코러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코러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25장 19~21절

다 같이

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20. 이삭은 사십 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기도에는 감사와 찬양과 고백 등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 분께 간구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분을 더욱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큰 문제에 직면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삭의 예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에서 어떻게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의 안일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진 것이 많아서, 또는 결핍이 적은 환경이어서 우리도 모르게 “이것쯤은 지금 나에게 심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잉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본문 21절 상반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피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라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어 우리들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인정하고 주께 기도합니다. 열 개의 문제가 있다면 나열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간구하여 모두 다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실제로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해보았나요? 혹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 21절 중반부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남편 이삭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는 히브리어 ‘아타르’(atar, עָתַר)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다’나 ‘간구하다’라는 뜻을 넘어, 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며 간청하다’, 또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다’라는 뉘앙스를 내포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애타는 마음을 안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간과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만 인식하고 실제로 이를 위한 간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큰일났네, 어쩌지?’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간부터 태도를 고쳐 간구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들으시고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시실 것입니다.

셋째, 응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를 인식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놓고 간구했다면 마지막으로 응답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비로소 참된 기도가 됩니다.

응답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본문 21절 하반절 “....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란 말씨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이것은 상호간에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며 서로를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 해도 간절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과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도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해 기대감이 없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실 때 간구에 기대감을 더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거인이 될 것입니다.

나눔 다 같이

1.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이삭의 모습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직면하고 있나요?
2. 나에게 있는 기도제목 중 아직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3.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응답의 시기와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나요?

중보기도 큰빛은혜교회를 위해 다 같이

1.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2.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지도록
3.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를 세워 주고 섬길 수 있도록
4.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미래의 영적 리더로 성장하도록
5.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간구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